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이기원, 최영미, 한은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백신에게 듣는다<아홉번째, 열번째>



인취사 혜민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남북통일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 일시 : 불기2547(2003)년 11월 15일(토) 오후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혜민스님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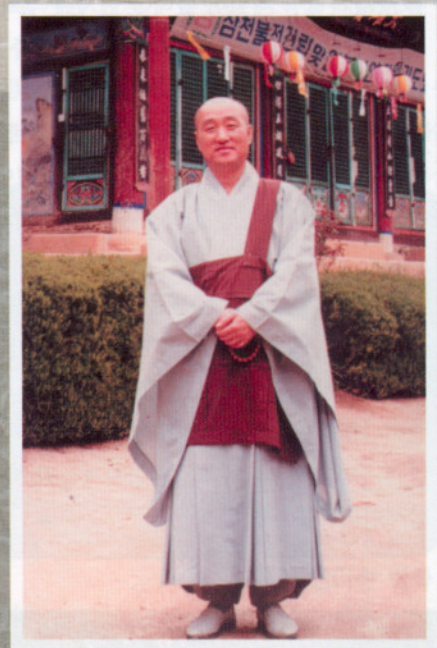
- ▶ 범어사 장설봉 은사 득도
- ▶ 통도사 강원과 중앙승가대학 졸업
- ▶ 충남아산 인취사 주지
- ▶ 백련시사 회장
- ▶ 저 서 : 총각스님/요즘 뭐 하세요? 외 다수

불암사 일면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일시 : 불기2547(2003)년 12월 20일(토) 오후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일면스님 약력

- ▶ 경남합천 해인사 명허화상 은사 득도
-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 ▶ 대한불교 조계종 제9,10,11,12대 중앙종회의원 피선
- ▶ 대한불교 조계종 제3대 교육원장
- ▶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 ▶ 불암사/흥국사 회주



11,12월호

불기2547년(서기2003년) 11, 12월 (통권제5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신 대승 운동의 뿌리가 되길 바라며...

탄일 권 승 하 / 경기불교문화원 감사

부처님 입멸 후 수 백년 사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부처님께서 살아 생전엔 출가자 위주로 부처님을 위시하여 열 제자 분들이 교단을 이끌어 갔었다. 수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철저한 탁발과 장자들의 수행처 제공으로 호구를 해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출가 수행자들 위주로 교단이 형성 됐기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부처님 입멸 후 많은 세월이 지나며 교단의 양적 규모의 증대 및 구성원의 다변화 등이 일어나면서 차츰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경전의 결집 문제로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뉘어져 대립을 하였으니 이 시기를 이르러 이른바 부파불교 시대라 이른다. 이 부파불교 시대에는 불교가 지금처럼 종교적인 자리매김을 한것이라기 보다는 수행자 집단에서의 분화 과정이라 할 수 있기에 일반 재가불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며 불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으며 널리 전파되니 인도 전역은 물론 멀리 그리스 문화권인 간다라 지방까지 퍼지게 되어 헬레니즘 문화와 융합으로 독특한 미술 양식을 이루었으니 이를 일러 간다라 양식이라 한다.

이 간다라 양식으로 불상을 처음으로 조성하고 민중들 사이에 이에 대한 숭배가 있었으니, 그 이전을 일러 불교 양식에 있어 무불상 시대라고 일컫는다. 무불상 시대에는 부처님의 형상이 없는 대신에 사리를 모신 탑과 신앙이 일반 재가불자들 사



사자빈신 사지탑

이에 유행하였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진신 사리만을 여러군데 나눠 모셔 일반 민중들의 신앙 기도처로 각광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부처님의 십대 제자 뿐만 아니라 당대의 유명한 수행자들도 다비하여 탑에 모시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가 민중 신앙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처음의 출가수행자 위주의 교단은 점점 한적하고 외진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자리는 당연히 재가불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출가 수행자의 뒷바라지며 탑파를 관리하는 일 등 여러가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또한 일반 민중을 깨우치기 위해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충당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했지만 부처님의 재세시나 입멸 후에도 이러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철저한 무소유와 교법주의, 출가 수행자 위주의 교단 구성은 민중 신앙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되니 이런 갈등의 표출이 바로 대승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무릇 출가하여 수행 득도한 자만이 부처의 단계에 이르는 것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선업을 쌓고 노력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마땅히 모든 중생을 이끌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꼭 이런 문제만 가지고 대승 운동의 요인이 됐다고는 보질 않는다. 수 세기가 흐르는 동안 재가자와 출가자 사이의 괴리가 융화 과정에서 대승운동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 또 논리적인 틀을 형성했으리라 본다.

대승운동이 일어 난지도 어언 이천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작금의 상황을 둘러볼 때 지금의 불교가 너무 사중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 된다. 훌륭한 선지식을 따르고 원찰을 돌보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개방되고 쌍방향적이며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 성숙된 시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자발적이며 자치적인 역량을 갖춘 재가불자들의 단체도 있어야 할 것이다. 발아기에 있는 경기불교문화원은 이러한 뜻에 충분히 부응하리라 본다. 모쪼록 이것이 신 대승운동의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렇기 위해서는 모든 재가불자들이 마음에만 담지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아직도 보시바라미를 보살님들에게만 미루어서야 되겠는가. 재가불자들의 따뜻한 초발심을 기대해 봅니다.

나무아미타불

경기
불교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불교기초교리 개강(11월 5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14주(50,000원)

제천 신륵사 사찰환경답사를 다녀와서

임 가 연 / 경기불교문화원사찰답사원

이번 답사는 제천 신륵사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신륵사라면 같은 이름을 지닌 많은 절 가운데 으레 여주 신륵사를 떠올렸지만 천년고찰의 제천 신륵사도 여주 신륵사 못지 않게 많은 보물이 있다는데 새삼 놀라움을 느끼면서 떠나게 되어 은근한 기대가 모아진 사찰 환경답사이다.

무엇보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들려본 서너 군데 사찰에서 사진이나 박물관에 갇혀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여러 사찰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설명을 듣고나니 무엇 하나 예사롭지가 않았다.

제일 먼저 도착한 단호사 대웅전에는 철조아미타불좌상을 主尊佛로 모셨으나 거룩한 금색이 아니라 검은 색이어서 웬지 낮이 설었고 뜰 앞의 수령 510년이라는 기괴한 소나무를 감상하며 잠시 쉬고는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났다.

충주 미륵리사지 이곳은 고려초기의 석굴사원 터로 고지대에 자리 잡은 이유는 멀리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누이인 덕주공주는 월악산 덕주사를 창건하여 남향방향의 한 암벽에 마애불을 조성하게 되었고 태자는 이곳에 석굴을 창건하고 불상을 북쪽에 두어 덕주사를 바라보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사원은 모든 배치가 북향이며 미륵불입상과 석동 석탑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單塔式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 미륵리사지의 약사여래불은 경주의 석굴암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성됐을 당시는 거대한 돌을 쌓아 올린 뒤 나무로 지붕을 세웠던 것 같으나 지금은 큰 돌만 돌려있어 황량 하기만 해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주말이면 유달리 비가 내려 마음 졸이던 날씨가 오늘도 오락가락 했지만 이내 활짝 개어 구름하나 없는 파란 하늘과 쏟아지는 햇빛이 눈이 부셨다.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숨어 있는 사자빈신사지 석탑 기단부에 네 마리의 사자를 배치하고 중심부에는 지장보살상을 안치한 이 석탑은 수법은 좀 신라시대 석탑보다는 떨어 지지만 하층기단부의 명문으로 다른 석탑과의 비교기준이 되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한다. 오늘의 목적지인 신륵사 조계종 법주사의 말사로 582년 아도화상이 창건했으며 그 뒤 원효대사가 중창하고 임란때는 사명대사가 다시 중창하고 6.25전쟁 때 폐사된 것을 1960년대에 복원하였다니 천년고찰이라 하겠다.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을 모셨고 후불탱화는 1700년대 말에 그려졌다고 하며 달집은 간소하였으나 용무늬 등으로 장엄하게 장식하였다. 건물의 바깥쪽은 부처님 前生談에 나오는 세 마리의 물고기와 화려한 여래상을 그려 장엄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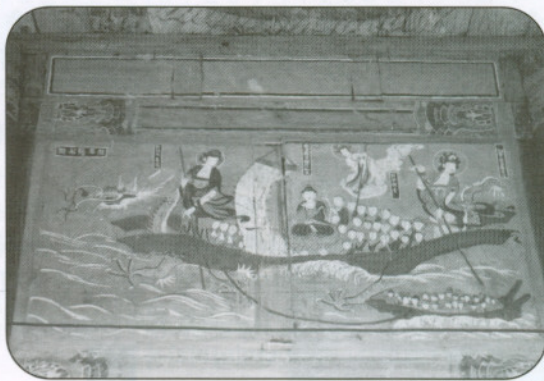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권중서 강사님의 설명으로 새삼 가치가 돋보인 극락전 바깥벽의 탱화는 어려운 불교의 교리를 그림으로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오늘로 세 번째 참가한 답사에서 문득 생각난 것은 그냥 사찰답사가 아니라 사찰환경답사라는 진정한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다녀 본 사찰 환경답사 중 寺格과 주지스님들의 면모를 볼때 첫 번째의 김제 청운사는 무엇보다 사찰의 풍광이 뛰어나나 매사에 너무 앞서가는 주지스님의 열정이 눈에피며 두 번째의 대원사는 절의 아기자기한 모습과 하나에서 열까지 몸소

실천하시는 스님은 우리에게 평상심의 도리를 일러주시는 것 같았다. 그런가하면 이번 신륵사는 천년고찰다운 사격과 석가모니부처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면면히 지켜 내려온 원력으로 가득 찬 주지스님 모습이 아주 인상 깊은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성불하세요

경기
불교



신륵사 반야선 벽화

경전강화 (금강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사 : 수산스님
기간 : 3개월 과정(4주 20,000원)

요가반

매주 월 /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강사 : 오전 - 김영옥
오후 - 최두남
기간 : 3개월 과정(4주 30,000원)



법 문

한국불교와 孝

효도를 받아야 할 사람도 평소에 자식에게
헌신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가슴 아픈일로 인해
효를 받지 못 하는가 하면 도리어 자식을
내팽개 치다 시피 한 사람이 말년에
공경을 받는 것을 보면 복이란 짓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自淨其意

용주사 주지 정락

2003. 9. 20

우 리 불교에서 孝라면 복과 연관되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효
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이미 모두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시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가슴만 괴로워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아예 외면해 버리는 수
가 많이 있습니다.

효도를 받아야 할 사람도 평소에 자식에게 헌신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가슴 아픈일로 인해 효를 받지 못 하는가 하면 도리어 자
식을 내팽개 치다 시피 한 사람이 말년에 공경을 받는 것을 보면 복이란 짓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게 효도하고 한편에서는 공경을 받는 것을 봅니다.

결국 부모 복 없는 사람이 효도하는 것은 양쪽이 모두 고생으로 우리 부처님법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전생의 공덕으로 결정
된다고 봅니다. 털끝만한 차이도 나중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벌어진다는 信心銘의 말대로 같은 생일날이라도 내가 태어난 날
과 날 낳아주신 날이란 차이에서 孝와 不孝가 나누워집니다. 대부분 사람은 은혜속에서 자라고 산다고 합니다.

장엄염불에 나오는 多生父母十種大恩이나 五種大恩銘心不忘에서도 나오듯이 孝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원만해지려면 무엇보다 복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간의 서운한 일에 대하여 곧 잘 전생의 죄업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시 미워하고 악업을 지어 미래세에 썸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까?

이런 때에는 우리는 오직 참회뿐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비록 현세에는 과보가 없더라도 미래세계를 기다리는 여유를 갖고 그리고 부지런히 善業을 닦아 福力을 길러야 합니다.

盡人事 待天命도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스스로의 능력과 과거세의 복력과 관계에서 볼때 결국 自業自得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복 짓는 것이 무엇보다 孝가 으뜸임을 더 말 할 나위가 없겠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孝를 좀더 대승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려봅시다.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산다고 했을 때 효는 부모와 자식간의 일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간
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할 때 인디라망의 어느 한 쪽에서 돌려도 전체가 출렁거리듯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맺어져 있으
므로 누구에게나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나 다생에 쌓인 업장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어느 유학자와 스님이 한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고생 끝에 무사히 목적지에 닿았을 때 유학자는 몸은 아무렇지도 않
았으나 마음은 좀 불안 했다고 했지만 스님은 몸이 배를 탄 적도 없고 풍랑을 만난 적도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몸이나 풍랑 모두가 마음의 흔적일 뿐이라는 반야의 境地로서 신문답에서 구구한 해석은 군더더기 이지만 마음 다스리는 법 하
나를 들어 보았습니다.... 나미아미타불

경이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세무사

전 종 환

TEL. 031)246-1177
FAX. 031)257-5533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규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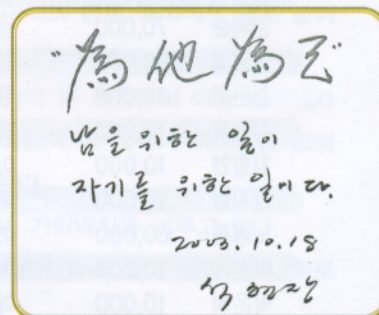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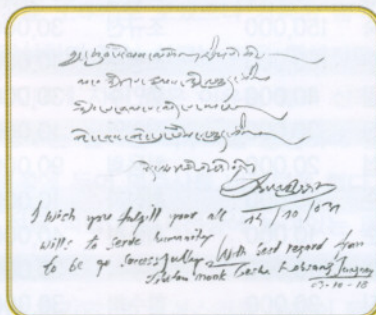


법 문

티벳불교와 한국불교

승려가 만 명씩이나 공부하여
당시의 교과방식과 학습체제가
고스란히 티벳에 전래되었고 10세기의
이슬람교 침입 때 살아남은
승려들이 경전을 가지고
피신하여 수행한 곳이 바로 티벳입니다.
이 티벳불교가 몽고 부탄 남부러시아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불교가 인도를 발상지로 두고 있지만 2천5백년
이란 오랜 세월을 지나면 널리 퍼져 각 지역의
민족이나 문명과 함께 독특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다보니 인도 티벳 중국을 증가로 하는 세 갈

래로 꽃을 피워 제각기 고유한 대장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 티벳 불교가 현대의 서구인들에게 새로운 정신적 귀의처가 되면서 범세계
적인 종교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언젠가 미국을 방문한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듣기 위해 5만이라는 군중이 모여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
이라도 어떤 기쁨을 느끼고 구원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인도불교를 들면 아쇼카왕이 인도대륙을 통일한 후 각 지역에 불교를 전파한 이래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등이 초기불교의 원형을 지켜
내려와 이것을 테라바다라고 합니다.

이 정통불교는 포교보다 2500년 동안 내려온 불법이 오염되지 않도록 고수하는 입장으로 각종 의식이나 탁발 등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
며 빨리 대장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티벳은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가장 발달했을 때 나란다 대학과 미클라마시 대학에 가장 우수한 승려가 만 명씩이나 공부하여 당시의 교과
방식과 학습체제가 고스란히 티벳에 전래되었고 10세기의 이슬람교 침입 때 살아남은 승려들이 경전을 가지고 피신하여 수행한 곳이 바로 티
벳입니다. 이 티벳불교가 몽고 부탄 남부러시아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끝으로 중국은 왕성한 역경사업으로 漢譯 대장경을 만들었고 중원문화를 토대로 중국화된 불교를 만들어 내며 한국 일본 북베트남 등 주위국
가 漢文化와 함께 전파 됩니다. 지금 여기 티벳(제시눔승승네)스님이 화계시는데 우리의 박사에 해당하는 분으로 박사학위과정으로는 15년간
불경을 학습하고 밀교를 후학해야 하며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암송해야 합니다. 티벳에서는 가장 독특한 자식을 10세 미만 때 절에 보
내 스님을 부모로 삼아 한방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함께 생활하며 성장 합니다. 모든 것이 가르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하는 것을 그
대로 보고 듣고 익히게 되므로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 되고 나중에 나이가 30, 40이 되면 다시 제자를 만나 가르치게 됩니다."

자 두손을 펴보십시오. 오른손은 어머니 손이라고 하며 다섯 개의 손가락은 이 세상의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다섯 가지의 길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라밀을 의미하고 왼손은 모든 것이 둘이 아닌 공한 진리를 깨닫는 아버지의 손이라고 합니다.

또 두 손을 합장할 때 이것을 지혜와 자비가 결합했다고도 하고 방편과 반야의 결합 또는 보리심과 본성이 하나가 됨을 말하며 이는 바로 대승
불교의 실천을 말 합니다. 티벳에서는 엄지를 안으로 넣어 합장함으로써 연꽃봉우리를 상징하고 고개를 숙이면 당신에게 한 송이 연꽃을 바칩
니다가 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자비와 지혜의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어 열매를 맺으면
바로 부처님이 되므로 관세음보살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달라이라마를 뵈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에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동포들이 죽고 사찰은 파괴됐으며 갖은 고초를 겪고 망명 정부를 세
웠으나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달라이라마는 무엇 보다 보리심과 모성애를 들
었습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끝없는 연민을 일으키며 모든 중생을 괴로움
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보리심과 모성애의 실천이며 평상심입니다. 그러므로 티벳사람
들은 화낼 줄을 모르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을 복덕을 많이 쌓은 부자라고 합니다.

나라가 부강할 수록 사회범죄와 가정범죄의 증가로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야 말로 나와 남을 이익 되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확
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장기
불교

가족은 부처님!



조계종 포교사/ 불교미술의이해 강사
권 중 서

H.P 011-9279-1401

중고차·신차 매매상담
21세기 자동차 상사

대표 박 노 훈

영통자동차 매매단지 207호
H.P 011-9912-4271

양모공장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9-5
TEL.031)241-0440
H.P 018-343-0440

이 화 정 생삼합물
감자탕

대표 선 은 숙

남문 팔달로 1가
TEL.031)244-0777



2003년 후원회비

■ 2003. 3 ~ 10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광국 60,000	신영주 40,000	장재수 10,000	강재수 50,000	어성미 10,000
권승하 110,000	심복현 30,000	장춘옥 10,000	김말수 40,000	윤영무 60,000
김기현 60,000	심숙영 20,000	정미해 10,000	김명옥 90,000	오동섭 20,000
김명자 20,000	심혜숙 160,000	정성숙 50,000	김미월 80,000	이대근 80,000
김상진 10,000	안창호 20,000	정수영 20,000	김상용 20,000	이영옥 30,000
김선자 20,000	어윤식 10,000	정창현 10,000	김유훈 20,000	이상범 60,000
김송배 20,000	유수영 10,000	조권형 300,000	김준호 80,000	이옥자 20,000
김영순 70,000	윤광숙 150,000	조규선 30,000	김영희 80,000	이임성 40,000
김영의 90,000	윤기수 150,000	조명순 10,000	김은희 70,000	이종옥 80,000
김완기 40,000	윤남일 40,000	주인수 30,000	김익순 70,000	이형숙 20,000
김향식 10,000	이경진 30,000	진희연 10,000	김준옥 60,000	장용집 45,000
김형연 10,000	이문섭 20,000	차용희 90,000	김향숙 40,000	정무근 60,000
남지영 10,000	이기순 60,000	최성자 10,000	남성자 200,000	조세천 60,000
노병희 60,000	이덕순 10,000	최종선 40,000	박미영 20,000	조창윤 60,000
박선옥 10,000	이미숙 10,000	최우석 20,000	박경아 40,000	조인숙 80,000
박은희 10,000	이선지 30,000	한수희 30,000	송미애 40,000	주영월 20,000
유병철 10,000	이은경 20,000	홍인영 10,000	설애자 25,000	지정숙 60,000
유병훈 10,000	이정자 10,000	허만해 10,000	신현자 20,000	최귀미 90,000
박청용 400,000	이주형 10,000	황선애 20,000	심복현 50,000	최정자 20,000
손원자 30,000	이충우 40,000	김순자 70,000	양준영 30,000	현병국 350,000
신선애 30,000	임장근 60,000	강영진 120,000	안영찬 20,000	홍인숙 80,000

■ 2003. 3 ~ 11월까지 후원금 · 이사회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재홍 1,100,000	김완기 500,000(컴퓨터),	권승하 280,000	최명길 400,000
진철희 2,350,000(단주500개, 관음카드500개)	김영희 300,000(암막커튼)	권중서 300,000	염규용 300,000
홍은선 DVD설치(1,200,000상당액)	파라가테후원금 250,000	박노훈 50,000	홍낙기 80,000
김용필 1,000,000	정성숙 200,000(요가매트)	이기원 250,000	윤영예 20,000
권중서 1,300,000(온풍기설치)	팔정회(윤혜예) 100,000	이화순 410,000	

■ 경기불교문화원과 연등으로 인연맺으신 분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김종구 1,000,000	정순자 30,000	강호직 30,000	조남형 30,000	김영희 30,000
권중서 100,000	신옥분 30,000	양재홍 30,000	한영옥 30,000	이학태 30,000
염규용 100,000	이순형 30,000	조권형 30,000	박병순 30,000	지병호 30,000
김태제 90,000	송미애 30,000	양성혁 30,000	진두박 30,000	배윤성 30,000
권혁찬 60,000	김정수 30,000	최홍엽 30,000	박청용 30,000	심명식 30,000
남윤현 60,000	전춘실 30,000	최기화 30,000	전병윤 20,000	정천수 30,000
고칠성 30,000	서순덕 30,000	최동만 30,000	한정자 30,000	정인철 30,000
김순자 30,000	손원자 30,000	김대중 30,000	양만식 30,000	이청용 30,000
권승하 30,000	진철희 50,000	김용덕 30,000	현병국 30,000	김신자 30,000
문미경 30,000	김상용 30,000	강명순 30,000	김지섭 30,000	심영구 10,000
최상례 30,000	윤영무 30,000	최명길 30,000	최종선 30,000	김영미영가등 30,000
최정순 30,000	김완기 30,000	이장재 30,000	최원용 30,000	
박용숙 30,000	박노훈 30,000	최정옥 30,000	안승준 30,000	

♠ 여러분의 뜨거운 정성이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누락되신 분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위빠사나 수행으로 성불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강사 : 황영채 12주(4주 20,000원)

재미있는 역학교실 개강(10월1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 보현 진열(철학박사)
기간 : 12주(4주 30,000원)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아홉번째) 열린법회 개최

날이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불교문화원(원장/ 진철희)이 개최하고 있는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초청(일곱번째, 여덟번째) 열린법회가 지난 9. 20(토) 불교와 효의 주제를 가지고 용주사 주지스님인 정락 큰스님의 열린법회가 있었으며, 10. 18(토)에서 “티벳불교와 한국불교”의 주제를 가지고 전남 보성 대원사 주지스님인 현장큰스님을 모시고 경.불.원 대법당에서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사찰환경 답사(9, 10, 11월) 개최

불교의 산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찰환경답사가 제천 신록사(9월), 여주 신록사(10월), 공주 갑사(11월)에 각기 현지에 있는 민속 문화와 음식등과 어우러져 개최되었습니다.

11·12월 행사 안내

■ 백인에게 듣는다(아홉번째)

헤민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남북통일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 일시 : 불기 2547(2003) 11. 15(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 백인에게 듣는다(열번째)

일면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 일시 : 불기 2547(2003) 12. 20(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 후원자의 밤

- 일시 : 12월 20일 (토) 오후 18시
- 장소 : 신혼뷔페 연회장
- 대상 : 후원자 및 회원
- 내용 : 각 강좌 반별로 장기자랑

■ 성도재일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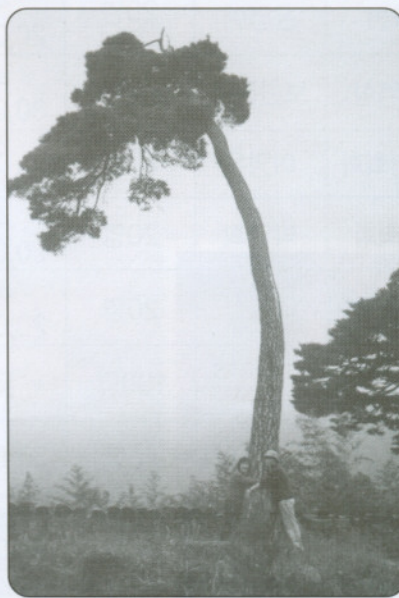
- 일 시 : 12월 30일
- 입재일 : 30일 오후 8시
- 회향일 : 31일 새벽 4시
- 행사내용 : 철야정진(기도, 1000배, 경전 독송)

■ 2004년 성지순례

- 일 시 : 불기2548(2004)년 1월 2일 ~ 12(10박 11일)
- 순례지 : 스리랑카
- 일 정 : 수원→인천국제공항→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기리아→포론나루와→담불라→캔디→누오라엘리아→스리파타→벤토나→콜롬보→인천국제공항→수원(호텔캐슬)
- 동참금 : 1인 165만원 • 접수마감 : 12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내외
- 계약금 : 1인 20만원 • 문 의 : 경.불.원 최영미 간사(251-1083)

■ 사찰환경 답사안내

- 일시 : 12월 7일(일) 오전 7시
- 장소 : 경남산청 겹외사→경남함양 벽송사(서암)
- 출발지 : 수원포교당 입구 매항다리앞 오전7시
- 동참금 : 3만원
(간식/중식/여행자보험료/사찰입장료 포함)
※11월29일까지 선착순 50명
- 접수 : 경기불교문화원(사무국)



벽송사

갈비의 보고장 본가 갈비

대표 : 최 태 성
매향교에서 동문쪽으로 100m 지점
TEL. 031-243-8851~2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자녀를 불교문화원으로 보내보십시오.
매주 토요일 : 무료 영화 상영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4주 2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노래교실	김혜은 최종선	20명	4주 20,000원	찬불가 및 노래부르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위빠사나	황영채	20명	4주 20,000원	위빠사나 수행법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신규
	기초교리	전문법사	40명	14주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신규
	불교문화 교실	권중서	20명	4주 20,000원	불상, 석탑, 탕화, 범종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신규
	경전강좌	수산스님	30명	4주 20,000원	금강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신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교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04년개강 (1년과정)
문 화 강 좌	발건강 관리법	안옥순	20명	4주 30,000원	발건강 관리와 족압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요가반	김영옥 최두남	20명	4주 3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30분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	신규 수시
	다도반	윤영예	20명	4주 2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초급 화요일 오전 10시 중급 목요일 오전 10시	5개월 과정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4주 3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중국어회화	이영옥	20명	4주 2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12월 신설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4주 2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4주 2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신규(초급)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첫째주 또는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종식/간식/ 보현료/ 입장료포함
	청소년 문화 쉼터반	이영옥	20명	4주 20,000원	중국어 회화	매주 월, 목 오후 4시 30분	초·중·고등
		박영희	20명	4주 20,000원	영어 회화	매주 화, 수 오후 4시 30분	"
		홍낙기	선착순50명	무료	영화 관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본 강좌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회원가입안내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고, 생일축전과 기념품을 드리며 문화원 자체 강좌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고·대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